"나만의 전시회 열어 보세요"

나주시 '나만의 전시회' 눈길
13개 팀 참가 연말까지 열려
한국화·도자공예 등 선보여

스마트미디어스테이션 전시실에서 개인·단체·아마추어 작가 13개팀이 참여한 '나만의 전시회'가 열렸다. 〈나주시 제공〉

"나만의 전시회 열어 보세요."

나주시가 빛가람 호수공원에 위치한 스마트미디어스테이션 전시실에서 시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를 위한 '나만의 전시회'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나만의 전시회는 문화 소비자이자 생산 주체인 시민의 문화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시민 공모를 통해 진행된다.

지난달 28일부터 10일 간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개인·단체·아마추어 작가 13개팀이 참가, 올해 연말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한국화·캘리그라피·실용천아트·도자기공예·사진·서각 등 매달 다양한 분야 작품전을 선보인다.

이 달에는 전미정 작가의 캘리그라피 및 실용천아트 콜라보 작품전, 백은영 작가의 한국화전 '나주에 어울리다'를 진행한다.

다음달에는 장복수 작가의 한국화 개인전, 박수진 작가의 수채화·소묘(꼬마화가들의 전시), 6월은 이재진 작가의 어반스케치(드로잉나주), 정미영 작가의 공예(쪽빛을 담다) 전시전이 이어진다.

전시전은 7~8월 여름 휴식기를 지나 9월 임희정 작가 서양화(감각과 표현展), 김미희 작가 수채·아크릴화(생각을 피우다)전으로 재개된다.

10월에는 '도자기들꽃'(대표 김희진), '한국화발전소'(대표 조민지)의 동아리 전시전이, 11월에는 이진문 작가와 나주문화원 서각교실팀의 서각 예술, 12월에는 '한국화창작스튜디오'(대표 신유화)에서 한국화·문인화, 한국농어촌공사의 제16회 농촌경관 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로 전시전이 마무리된다.

김윤희 나주시문화예술과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채우는 전시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군, 우수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신청 접수

22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화순군이 전남도지사 품질인증제에 참여할 지역 우수 농수특산물·가공식품 등을 모집한다.

도지사 품질인증제는 전남서 생산된 우수 농수특산물과 가공식품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품질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제품은 남도장터·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에 판매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신청 대상은 지역 거주 농어업인·생산자단체·농수특산물 제조업체로 신규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나 인증 기간이 만료된 기존 업체다. 오는 22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접수하면 된다.

품질인증 제품에 선정되면 ▲전남도 통합상표 3년간 사용 ▲자가 품질 검사비·제품 디자인 제작비 지원 ▲전남도 농수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 우선 입점 기회 등 특전이 제공된다.

앞서 화순군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6개 업체 46개 제품이 도지사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도지사품질인증제품 발굴로 언택트 시대 우리군 농수특산물 식품산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쟁력 있는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새롭게 단장한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말레길.

장성군, 원예농산물 저온저장고 53동 지원

2ha 미만 채소·과수 등 재배농
설치 비용의 50~60% 지원

장성군이 원예농산물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낮은 온도에서 장기간 농산물을 보관하는 저온저장고는 과일, 채소, 화초 등 신선도 유지가 상품성 보존과 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원예농산물 재배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수확기에 저온저장고를 사용해 농산물을 보관해 두면, 시장 상황에 맞게 출하량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지만, 설치 비용이 높아 농업인들이 느끼는 부담이 큰 부분은 단점으로 꼽힌다.

장성군은 올해 도비 포함 3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저온저장고 53동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규모 2㏊ 미만의 채소, 과수, 특용, 시설하우스, 버섯 재배 농가다. 군은 면적 기준을 충족한 농가에 한해 저온저장고 설치 비용의 50~60%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물가 상승률에 맞춰 지난해보다 상향됐다. 3평형은 600만원에서 630만원으로 올랐으며, 20평형은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크게 인상됐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농산물마케팅팀(061-390-844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원예농의 필수 시설이라 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설치비를 지원해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낮추고 소득 확보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서 "농가 선호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흥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말레길 '새단장'

3.8㎞ 데크길 정비
억불산 정상까지 등반 가능

장흥군이 지역 대표 산림휴양 관광지인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말레길 새단장에 나섰다.

지난달 16일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말레길 환경 개선은 방문객들의 안전한 이용과 쾌적한 걷기 환경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3.8㎞ 구간의 데크길 가운데 훼손된 곳을 보수하고 산책로 난간을 새로 칠하는 등 탐방로와 주변 환경 개선을 집중 실시했다.

말레길은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억불산 정상까지 이어져 있다.

장흥지역의 방언인 '말레'는 '대청'을 뜻하는 말로 '가족간의 이해와 소통의 장'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말레길은 3736m 길이의 나무데크로 조성됐으며 이곳을 이용하면 노약자와 장애인들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억불산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새단장한 말레길을 이용해 남녀노소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즐길 수 있다"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kykim@kwangju.co.kr

담양군문화재단, '담빛시민단' 분과위원 모집

8개 분과 8명 내외

담양군문화재단 문화도시추진단이 2022 예비문화도시사업의 조성을 이끌 시민위원회 '담빛시민단'에 참여할 분과위원을 모집한다.

담빛시민단은 담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지역자원 활동 및 지역사회 문제에 따른 토의를 진행하는 시민위원회다.

분과별 토의, 지역자원 탐방 조사 등을 진행하며 문화도시사업 본도시 심사평가에서 지역 홍보, 의제 발굴, 담양의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 방안 구축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시민단은 담빛MZ분과와 담빛생활문화분과, 담빛예술분과, 담빛문화다양성분과 등 총 8개의 분과로 이뤄져 청년, 농업, 환경, 이주민 등 지역의 현안을 심도 깊게 고민해볼 만한 분과로 구성했다. 인원은 분과별 8명 내외로 모집할 예정이다.

군민 또는 직장, 학교 등 담양군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선정되면 위촉장 수여, 분과별 교육, 지역자원 탐방 시 필요한 경비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시민단의 활동의지 등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참여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dycf.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문화도시추진단(070-8803-0745)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나주시, 이달말까지 장내 기생충 무료 검진

나주시는 주민의 기생충 감염 예방을 위한 장내 기생충 무료 검진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검진 대상은 지리적 요인으로 기생충 감염 위험이 높은 영산강 유역 거주 주민, 민물고기 취급업소 종사자, 어업권 소유자 등이다. 간흡충, 장흡충, 회충 등 11종에 대한 검사로 시민 누구나 4월 말까지 나주시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검진 기간은 한 달 정도 소요되며 결과에 따라 감염 주민은 치료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재검진을 통해 완치 때까지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서현승 나주시보건소장은 "민물고기 생식 경험이 있는 주민은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해 장내 기생충 검사를 받아야한다"며 "주민 건강 유지를 위한 예방수칙 준수와 조기검진, 맞춤형 치료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